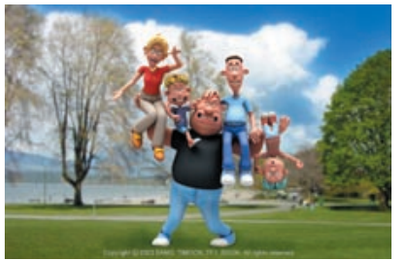
삼지애니메이션 김수훈 사장

국산 애니메이션 희망의 불씨 되살린 '작은 영웅'

TV용 3D 애니메이션 'ODD Family' 프랑스와 공동제작 나서 유럽 최대 민방 TF1에 수출 계약 체결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지난 10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삼지애니메이션이 기획한 3D 애니메이션 'ODD Family'의 국제 공동제작 발표회가 프랑스 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이다. 삼지애니메이션과 프랑스의 티문애니메이션이 공동 개최한 이번 제작 발표회에는 TF1, ZDF 등 유럽 방송사, 미국 배급사 MGM, 한국 공중파 3사 등이 참여해 TV용 3D 시트콤 ODD Family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유럽 최대의 민영방송사인 TF1은 20억원에 이르는 프랑스내 방송판권료를 지불하기로 해 향후 ODD 패밀리의 글로벌 배급망 확보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ODD Family의 제작사 삼지애니메이션의 김수훈 사장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계획을 들어봤다.

취재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김수훈 삼지애니메이션 사장은 처음 3D 애니메이션의 기획에 나섰을 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삼지애니메이션이 기획, 제작한 작품은 시작부터 몇 가지의 차별점을 갖게 됐다.

첫째, 아직 사업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극장용 장편보다 TV용 3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둘째, 소수 매니아 지향의 어두운 작품보다 밝고, 코믹스러운 작품을 만든다.

셋째, 가족지향의 내용을 추구한다.

넷째, 따뜻하고 부드러운 3D 영상을 선보인다.

다섯째, 해외를 먼저 다니며 작품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첫 번째 작품이 '찌질이'라는 인터넷용 3D 애니메이션이었다. 제작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었지만, 찌질이의 제작적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저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간의 작업을 통해 제작된 20분 분량의 이 작품은 당시 유니텔 웹피 등에서 조회 수 40만 건을 넘기는 등 성공을 거뒀다. "엽기코드에 놀라는 기색과 함께 3D 스타일이 새롭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찌질이' 스타일에 더 호기심을 갖는 에이전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라고 김수훈 사장은 전했다.

찌질이의 제작,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 그 이전의 몇 가지 CG 작품들의 경험들이 합쳐져 삼지 제작진은 소수지만 정예의 면모를 갖춰나가게 됐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D TV시트콤 'ODD Family'의 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ODD Family의 탄생, 캐릭터

'ODD'란 말은 영어로 '괴짜스런, 이상한'의 의미를 갖는다.

야구를 주제로 한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에는 강아지가 선수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애니메이션에는 어느 정도의 기발함이나 과장이 섞여 있어야 좀 더 애니메이션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이 '이상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김수훈 사장은 "어쩌면 이 질문은 삼지가 ODD Family의 제작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참 이상한 것들은 많지만, 정작 이상해지려면 쉽지가 않고 또 그러면서 재밌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크게 가족의 구성, 가족의 직업, 가족의 성격을 특이하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탄생된 ODD Family의 주인공은 10살의 쌍둥이로 결정됐다. 이들의 순수함과 정의감은 남다르지만 사건을 만드는데도 일등공신이다. 그리고 외계에서 귀여운 생명체가 불시착해서 애완동물처럼 함께 살게 된다. 집안에는 발명가 삼촌이 만든 생활로봇들, 기발한 장치들이 곳곳에 놓여있고 때로는 폭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삼촌이 만든 생활로봇들은 기계라기보다 가족의 테두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아빠는 특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일하는 운전강사이며, 엄마는 매우 활동적인 스타일이다.

이들 가족에 훼방꾼이 없으면 또 심심하다. 그래서 집안정복을 꿈꾸며 자신들만의 미로를 확장해 가는 생쥐 일당이 쌍둥이와 쫓고 쫓기는 대결을 벌인다. 하지만 이들 또한 ODD 가족과 그 집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한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결국 이들 가족은 현대적인 면과 복고적인 면, 천재적인 면과 순진무구한 면을 동시에 갖춘 어딘가에 있을법한 '이웃'의 느낌을 지니고 있다.

데모제작과 해외 공략

ODD Family의 데모는 총 4분, 집안 내에서 벌어지는 쌍둥이의 성인비디오 입수작전과 이를 방해하는 생쥐일당의 에피소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내용의 익숙함을 더하기 위해 미션임파서블의

대표적인 공중낙하절도사건(?) 장면도 참고했다.

"영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한 것은 카툰풍의 클레이터치, 그리고 실제같은 배경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TV에 방영된 3D 작품들은 차갑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에 삼지만의 영상스타일 창조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제작과정에서의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영상의 '연출'에 있어서는 CG 경험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감각적인 '끼' 같은 것이 필수적인데, 김 사장이 이 부분에 남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큰 버팀목이 됐다.

ODD Family의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는 유럽풍, 특히 영국의 아드만스타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시장에서 먼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삼지의 전략이기도 했다.

기획을 포함해 총 8개월 여의 데모작을 완성한 2001년 10월, 이 회사는 프랑스로 달려갔다. 대형 국제견본시가 1년에 두 차례나 열리는 프랑스는 영상, 예술분야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프랑스 관계자들에게 ODD Family 데모를 보여주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공동제작을 하자는 제의도 바로 들어올 정도였다.

"미국시장도 고려를 했지만 당시 미국은 9.11 테러로 인해 입국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갔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셈입니다."라고 김 사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가운 소식은 국내에서도 날아들었다. 데모작이 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영상산업의 최대시장인 미국의 국제견본시 NATPE에서의 반응도 고무적이었다. 삼지는 이 때부터 ODD Family의 영상스타일과 퀄리티, 작품 컨셉이 먹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넘어

하지만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프랑스의 중견제작사와 공동제작 딜 메모를 체결하고 시나리오 작업에도 착수했지만, 국내에서의 투자유치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유럽의 메이저방송사인 TF1이 ODD Family의 적극적 후원자로 나서고, 미국, 일본의 배급사가 ODD Family의 배급의향서를 보내는 등 해외의 움직임은 순조로웠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안목이나 의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삼지애니메이션이 작은 회사라는 점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심지어는 해외와의 합작이 오히려 신경쓸 게 많아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ODD Family의 글로벌 방영이나 배급, 안정적 제작을 위해서는 해외합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김 사장은 여기서 꺾이면 다시 저예산의 국내에서나 방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때 삼지에게 힘이 된 건 프랑스 쪽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ODD Family에 대한 신뢰였다. 그들은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었고, 자신들이 다 투자를 해서라도 제작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2003년 1월, 6개월 여의 길고 긴 논의 끝에 삼지애니메이션과 프랑스 티문애니메이션(Timoon Animation)간의 국제공동제작 계약이 비로소 체결됐다. 그리고 유럽의 메이저방송사인 TF1은 이례적으로 본제작 이전 단계에서 작품의 방영을 공식문서로 확정지었다. 그들은 프랑스 내에서의 방송판권료만으로 20억원을 약속했을 정도로 ODD Family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쯤까지 사업이 진행되자 국내에서의 투자유치도 급물살을 탔다. 글로벌한 대형 애니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던 관련투자조합이 작품을 심사한 후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국립영화센터인 CNC가 한국 콘텐츠로는 최초로 ODD Family에 투자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투자유치까지 마무리되면서 삼지애니메이션은 지난 10월 10일, 프랑스 깐느에서 ODD Family 국제제작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ODD Family는 TV애니메이션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그만큼 작품의 시나리오, 디자인부터 영상퀄리티까지 모든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특히 이 작품은 3D 코믹시트콤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영상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삼지애니메이션은 향후 제작과정에서 작품의 원기획사로서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괄하게 되며, 시나리오, 디자인 및 후반작업 등은 프랑스 티문애니메이션이 맡게 된다.

제작과정과 별도로 삼지는 그동안 효율적인 제작시스템의 구축에도 투자를 해왔는데, ODD Family는 그 첫 사례가 된다. 다음 작품을 위해 이 회사는 이번 작업과정에서의 개인별 작업관리나 전체적 스케줄 관리, 업무 평가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DB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지난 1월에 체결됐지만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방황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